

2023년 1월 29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and in every place, incense will be offered to my name, and a pure offering. For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hosts.  
말라기 Malachi 1:1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는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남은 평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야고보의 발언

The Words of James  
사도행전 Acts 15:13-21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After they finished speaking, James replied, “Brothers, listen to me.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Simeon has related how God first visited the Gentiles, to take from them a people for his name.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And with this the words of the prophets agree, just as it is written: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I will rebuild the tent of David that has fallen. I will rebuild its ruins, and I will restore it.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That the remnan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Says the Lord, who makes these things known from of old.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Therefore my judgment is that we should not trouble those of the Gentiles who turn to God,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But should write them to abstain from the things polluted by ido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blood.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For from ancient generation Moses has had in every city those who proclaim him, for he is read every Sabbath in the synagogues.”

요약:

제1차 예루살렘공의회에서 베드로에 이어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 보다 근접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발언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예배에 관하여,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친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 받은 공동체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일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공의회에서 채택되었고, 시리아 안디옥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교회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오내오 없이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인간 모두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써 구원 받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실천 가운데 하나가 복음전파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생명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길은 구원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입니다.

베드로(Peter)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all the assembly fell silent, and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as they related what signs and wonders God had done through them among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5:12).

이 발언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형제들을 지지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써 구원 얻는 도를 그도 증거 했습니다. 지난 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분열되었던 예루살렘공의회(Jerusalem Council)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사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는 복음말씀을 확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증거한 복음말씀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써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공의회 참석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후에 야고보(James)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 및 그 형제들을 지지한 셈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Amos) 9:11-12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감동으로써 실시한 제1차 선교여행에서 이방인들이 구원 받고 돌아온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베드로(Peter)의 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온 예루살렘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교회일치의 “방향”과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폭넓게는 “구약성경”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야고보(James the Just)”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열 두 제자 중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열 두 제자 중에 두 야고보(two men of James)가 있습니다.

1.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James son of Zebedee)는 James the Great (James son of Zebedee)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립바(Herod Agrippa)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열 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James son of Alpheus)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James the Lesser, or the Younger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며 사역하다가 94세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후자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기자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James the Just) 그는 예수님의 인척(동생, 혹은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생으로 보는 경우는, 야고보(James), 요셉(Joseph), 시몬(Simon), 그리고 유다(Jude) 등으로 읽는 예수님의 형제들 명단이 있습니다(마태복음 13:55). 이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Is not this the carpenter's son? Is not his mother called Mary? And are not his brothers James, and Joseph, and Simon and Judas? And are not all his sisters with us?  
(마태복음 Matthew 13:55-56a)

가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누구도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 특히 가톨릭 신약학자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도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의 처녀성은 예수님 탄생 때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출생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 자녀 출산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아그립바(Herod Agrippa)의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중에는 유일한 지도자로 예루살렘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도행전(Acts) 21장에 따르면,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를 영접한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James the Just)였습니다. 그는 서원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도록 권유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믿음뿐 아니라 “행위”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The Epistle of James)가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학자 제임스 던(James D. G. Dunn)은 베드로가 바울과 야고보의 중간역할을 맡은 것으로 봅니다. James Dunn has proposed that Peter was the “bridge-man” between the two other “prominent leading feagures,” Paul and James the Just.

오늘 목회기도 때 인용한 말라기(Malachi)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and in every place, incense will be offered to my name, and a pure offering. For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hosts.  
말라기 Malachi 1:11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이방인 구원의 기치를 높이 걸었습니다.

구약 다음에 신약이지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Gospel according to Matthew)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그 배치가 말라기서와 만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복음을 증거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성경말씀 묵상합니다.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After they finished speaking, James replied, “Brothers, listen to me.

베드로가 말하고, 이어서 우리가 잠잠해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공의회(Jerusalem Council)에서 편안하게 선교 보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증거 한 복음 말씀을 믿게 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그 야고보(James the Just)가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Simeon has related how God first visited the Gentiles, to take from them a people for his name.

야고보는 베드로를 “시므온” (Simeon)이라고 옛날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므온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이방인들을 돌보신 섰다는 것을.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And with this the words of the prophets agree, just as it is written:

야고보는 평가합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I will rebuild the tent of David that has fallen. I will rebuild its ruins, and I will restore it.

이것은 야고보가 아모스(Amos) 9:11-12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시키실 때입니다.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That the remnan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이어서 아모스 9:11-12를 계속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remnants)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Says the Lord, who makes these things known from of old.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이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옛날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모스 이전부터. 모세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창세기 Genesis 12:2-3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곧 그를 통하여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옛날부터,”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방의 구분 자체가 한 민족 “배타”(exclusiveness)가 아니라 모든 민족 “포용”(inclusiveness)이었던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Therefore my judgment is that we should not trouble those of the Gentiles who turn to God,

이제 야고보의 의견(judgment)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But should write them to abstain from the things polluted by ido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blood.

그러나 몇 가지는 가르쳐야 합니다. 1. 우상의 더러운 것, 2. 음행, 3. 목매어 죽인 것, 4. 그리고 피입니다. 모두 네 가지입니다.

#1-2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써!

#3-4는 “식탁교제”(table fellowship) 규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성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는 교회 사역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헬라어로 “코이노이아”(Koinonia)라고 합니다. 그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11-21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을 봅니다.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미리 와 있던 게바(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뜬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게바(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If you, though a Jew, live like a Gentile and not like a Jew, how can you force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갈라디아서 Galatians 2:14b

야고보가 제안하여 사도들이 동의하여 낸 네 가지 규례들(the Four Apostles’ Decree) 중에 두 가지가 식탁교제(table fellowship)의 장애를 제거한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비록 모든 율법계명을 다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제자매로서 교회 성찬식을 포함하여 성도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3에 해당하는 것은, 가축을 도축할 때 피를 흘려내는 방식을 택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4는 생명 되는 피를 음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모세오경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제1-4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1, 곧 우상의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 음행은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린도교회에 파고들었던 음행을 멀리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For from ancient generation Moses has had in every city those who proclaim him, for he is read every Sabbath in the synagogues.”

이방인들도 오래 전부터 “회당” (synagogue)을 통해 유대인들이 읽고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은,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교육하여 그 율법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규례(the Apostles Decree)들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교회일치의 방향과 그 출발점에 선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적어도 1. 우상숭배는 멀리해야 하고, 2. 성도의 식탁교제는 거리낌이 없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성별차별이나 연령차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편견을 불태워 버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7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에서 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써 고난을 이겼습니다. 유대인의 편견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써 구원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 이웃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삶이 고단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아도,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복음사역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믿었지만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특히 헤롯과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중에, 심지어 베드로도 피신한 터에,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훌륭함을 주목할 일은 아닙니다. 성령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점을 지적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습니다.

나는 오늘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말세지말을 당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뵈고 예배드리며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일에, 야고보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과 육의 식탁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에 당신의 종들을 일군으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